

계속적인 독서활동으로 논리능력을 길러야 한다

(김승환/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술작성과 독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학수학능력 평가방법이 논리적인 문제를 평가하게 되고, 대학 입시의 본고사중에서 논술시험을 치루게 되자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논술 비상에 걸여 있다. 그 동안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고 암기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논술고사 답안 작성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수험생들의 논술작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개성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해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는 평소 생각하는 능력을 폭넓게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이 부족해 주제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논설을 쓰게 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규명해서 쓴것을 논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논술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령 탁구와 정구의 운동경기에서 어느 경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탁구이든 정구이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운동에 대한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서 즐기던 정구같은 공놀이 운동이었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탁구와 같은 운동경기가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반대로 탁구는 옛날에 실내에서 간단히 즐기던 운동이었는데 산업이 발달하고 스포츠문화가 발전하면서 밖에서 즐기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정구가 나중에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면, 이 두 경기에 대한 역사성은 여기서 결론내지 못하고 먼저라는 사실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구와 탁구가 각각 먼저라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논리적이어서 결론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생각은 어렸을 때 부터 계속해서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길러져야 한다. 독서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에 접하게 되지만 책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이 가장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논리적인 생각을 기른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도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독서생활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독서에 대한 기본원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5학년에서 모두 가르쳐 주고 그 방법에 의해 계속해서 독서생활을 반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책을 읽기전에 해야 할 문제, 읽으면서 실천해야할 방법, 읽고나서 실시해야할 활동 등을 초등학교에서 체득하도록 지도하고, 그 체득한 방법에 의해 계속 독서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독서교육은 각 학년과 개인차에 의한 독서자료를 개발해서 일정량을 꼭 읽도록 하여 읽은 뒤에는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정리(기록)하는 것은 소그룹이나 학급별로 실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또 토론할 때 아무렇게 하겠는가, 생각했던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

발표하고 토론한 결과를 다시 생각하면서 기록해 정리한다면 이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방법이 습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학교·고등학교과정에서는 이러한 독서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독서교육이 학교도서관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향상된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대학수학능력 평가에만 적용하겠는가. 이러한 독서교육이 곧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다.